

## 가정생활의 합리화를 위하여

—창립 13주년을 맞아 「가정학회지」를 창간한다—

대한 가정학회 회장 최 이 순



학교 교육의 한 과목으로서 가정학 교육(家政學教育)이 시작된지 세계적으로 보아 한 세기(世紀) 이상의 역사를 가졌고, 우리 나라에서도 대학 교육의 전문 분야로서 발족된지 30년의 역사를 이미 가지고 있으며, 국내외(國內外)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수천에 달 합니다.

가정에서, 교육면에서 연구생활에 종사하고 있는 가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해방후 “가정학을 연구 보급하여 가정 생활을 합리화(合理化)하자”는 목적을 가지

회 장

고 뭉치인 모임이 “대한 가정학회”입니다. 학회가 발

족된지 10년이 넘었으나, 이번에 처음으로 기관지 “가정학회지”를 내놓게 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되나 학보를 출간하기까지에 회원 여러분과 여러 유지들의 숨은 정성과 협력으로 창간호를 내놓게 된데 대하여는 경하하는 동시에 눈물 겨우게 감사합니다. 이 뭉치고 돕는 정신은 앞으로 우리들의 문제 해결에 관건이 됨을 깨닫고 힘을 얻었습니다.

긴 역사를 가진 가정학 교육이 우리 사회나 가정 생활에 얼마만한 공헌을 하고 있는가를 반성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들의 할 의무와 사명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고도(高度)의 과학 발달은 지상(地上)에서만 문제가 아니고, 온 우주를 정복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 생활만은 여전히 구태(舊態)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

또 한번 부끄러움과 책임감에서 압박감을 금치 못합니다.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지키고 대대손손에게 전하여야 할 의무와 사명도 우리에게 지워져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할 일은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변천하는 그 시대의 요구를 찾아서 그것에 대답하고 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과 방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그 대답을 찾아 나아가 생활의 발전이 있도록 힘써야겠습니다. 생활이란 움직임입니다. 움직임에는 변함이 있어야겠습니다.

참된 국민을 기르고, 바른 사회와 튼튼한 국가를 건설하여 나가는데 근원지인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생활이 발전하여야만 그 나라가 발전할 것은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입니다. 가정 생활의 발전은 가정학 교육의 올바른 지도 없이는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. 올바른 가정학 교육은 어떤 개인의 부르짖음 만으로, 혹은 어떤 학교 교육만으로써는 불가능한 일이고, 사회와 국가가 다같이 합심하여 연구하고, 이 운동을 밀어주고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만 국민생활이 합리화될 것이고 문화적 생활이 향상되고 새 것을 창조하여 나갈 것입니다.

가정학 교육은 각 개성의 발전과 생활의 방법과 방향을 가르쳐 주는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. 개인의 완전한 발전없이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 없고, 원만한 가정 생활 없이 굳세고 진실된 국민이 될 수 없을 것이요, 민주주의적 가정 생활 없이 민주 사회 국가를 이룩할 수 없음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.

그러므로 가정학 교육의 필요성은 어떤 국한(局限)된 교육자나 여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이요 남녀가 다 같이 질머지고 연구하여야 할 국민의 과제요 운동입니다. 가정학 교육은 여자들에게만 가르칠 과목이 아니요 남녀가 다 같이 배우고 연구할 큰 과제이므로 학교 교육에서도 교과목 편성에 큰 용단이 필요합니다. 국민 전체가 가정학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, 가정 생활의 합리화를 위하여 활발하게 운동이 전개되는 때—굳세고 진실된 국민을 길러 내고 살기 좋은 내 집, 내 땅 만들어 우리의 문화를 창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우리 가정 생활의 합리화는 주부들에게 참된 해방이 되어 찬란한 문화를 다 같이 창조할 수 있는 원천지가 되고, 원동력이 될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.

(1959년 10월 31일)